

## <부산MBC 2023년 1월 시청자위원회 의견서>

작성: 김보영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2023년부터 부산MBC 14기 시청자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 6장(시청자권익보호) 제 87조와 88조에 명시된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해 구성된 단위로, 방송편성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송법의 시청자위원의 권한과 직무를 묵직하게 받아들이며 임기동안 부산MBC를 감시·격려·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 부산MBC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언론(言論), 언로(言路)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판과 격려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4기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시고 부산MBC 콘텐츠 제작과 편성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 ▲ 부산의 소멸 위기의 원인 다각도로 짚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 제시한 연말기획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의 현실>

부산MBC는 연말 기획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의 현실>을 뉴스데스크와 시사포커스IN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인구소멸의 위기에 선 부산의 현 주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인구소멸의 핵심인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타도시(인천) 사례를 통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탈부산의 원인과 해법제시를 한 점에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거주만족도와 출산과 양육의 향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는 결국 좋은 일자리만 있다면 부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해법을 재확인한 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산의 산업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이 '시설·건물 짓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한다는 시민들 의견을 강조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문제의 해법을 그 동안 단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여 제시했지만, 이번 연말기획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의견을 들어봤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이점 부각 시,  
사익추구와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한 보도 필요

부산MBC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기획 <2023 부산 세계의 중심으로>를 1월 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신년기획에 맞게 부산지역의 새로운 강점들을 짚어주는 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1월 3일 신년기획 두 번째 보도 <부산항 개항 147년..부산 '얼굴' 바뀐다>에서 부산은 그 동안 택지와 산업용지 부족, 산에 가로막힌 도심으로 개발 사업에 제한점이 많았으며, 부산시가 북항일대에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MBC도 “2030년 북항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 취재 거점을 옮겨 북항시대를 준비”한다는 자사 이전 정보도 전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동력의 거점이 될 곳에 대한 장점을 열거한 뒤, 부산MBC도 새로운 북항시대에 걸맞게 취재 거점을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스토리텔링은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자사 이익을 위한 ‘북항 띄우기’로 생각하게끔 해 뉴스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이점을 부각할 때 그 이점이 사익추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산MBC의 강점, 사회 환경감시에 충실한 보도  
2023년에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에도 부산MBC는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행정감시 보도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지신도시 2단계, 중금속 기준치 최대 80배 달해\_조민희[단독](1/3)

기준치 80배 오염..3년 전 평가서는 '이상 없음'\_조민희(1/4)

"장소도 시기도 같은데"..LH 조사 '오염 없다'\_조민희(1/12)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에, LH "다시 조사"\_조민희(1/16)

'전국 최대' 자량 드론쇼..안전사고 '쉬쉬'\_현지호[단독](1/5)

드론 추락 또 있었다..구청 "모르는 일"\_현지호(1/6)

4년 만에 폐쇄된 주차장..'중대 결함' 발견\_현지호[단독](1/10)

특히 명지신도시 2단계 개발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 LH의 '재조사' 방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주 광안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쇼'의 드론추락을 단독으로 취재하여 드론업체에게 모든 관리를 맡긴 수영구의 무책임함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는 그 동안 지역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권력, 지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권력 등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감시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감시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비판과 감시의 끈을 2023년에도 놓치지 않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고 바라봅니다.